

“박왕자씨 5시 15분께 피격”

정부 합동조사단 “식별 가능했다”...北 주장 반박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정부 합동조사단은 12일 “박왕자씨가 당일 새벽 5시6분께 해수욕장 경계 펜스를 통과해 15분께 경계 펜스에서 기생방위 방향으로 직선거리 200m 지점에서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황부기 합조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피격시간을 5시 15분으로 추정하는 것은 총소리를 듣고 시계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대체로 5시15분경으로 일치하고, 총성을 들은 직후 찍은 사진의 카메라 시각이 새벽 5시16분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진에는 이미 박왕자씨가 쓰러져있는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당일 새벽 4시50분께 경계 펜스로부터 800m 떨어진 지점에서 고인을 발견했고 500m를 도주한 고인에게 새벽 4시55분에서 5시 사이에 총탄을 발사했다는 북측의 주

장을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고인이 울타리 경계선을 넘어 9분정도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의실험 결과로 봤을 때 북측이 주장하는대로 800m를 갔다가 다시 500m를 이동하는 데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격 시각이 당일 일출시각으로부터 4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대상의 남녀 식별이 불가능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서울지방경찰청 조만기 수사부장은 “현대아산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활동, 안전시설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관광객 신변 안전을 위한 관리에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안전관리 부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장은 해수욕장 출입통제 시간

대 안전요원 순찰이나 관광객 통제 등 안전활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수욕장 북측 경계펜스에서 해안선까지 30m 가량은 2005년 이후 모래언덕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경계펜스 관리부실과 관련, 금강산 사업소 총소장은 추후 책임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사건보고를 받은 직후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된 로프를 모래언덕 앞에 설치토록하고, 부하직원 2명에게 경찰수사시 펜스가 해안선까지 설치돼 있고, 출입금지 표지판도 부착돼 있다고 진술하라며 진실언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그러나 “현대아산의 형사책임 문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인데 이 점은 관리소홀과 사망사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진상규명이 된 뒤에야 종합적인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그루지야 군사 작전 종료 선언

메드베데프 대통령 “안전 회복”... 교전 5일만에 마무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그루지야 내 군사 작전 종료를 명령했다고 인테르팩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결과가 모두 달성됐기 때문에 그루지야 전역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군사 작전 종료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루지야가 적대 행위를 재개할 경우 바로 대응할 것을 명령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오세티야와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안전이 회복됐다”면서 “침략자들을 응징했고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작전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러시아군에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 대통령궁(크렘린)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방부에 군사작전 종단을 명령했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유럽연합(EU) 대변인도 허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가 메드베데프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 사령관도 그루지야 내 군사작전 종단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종료 선언은

EU 순회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루지야 사태 중재를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한 가운데 발표됐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종료 선언으로 5일째 계속되던 그루지야와 러시아 간 무력충돌이 사실상 종결 국면을 맞게 됐다.

그루지야는 지난 8일 새벽 친 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과 휴전에 합의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남오세티야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남오세티야에서 2천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루지야는 지금까지 약 2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그루지야에서의 군사 작전 종료 명령한 가운데 그루지야군이 11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거의 모든 도로가 파괴된 트빌리시 인근 고리시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대규모 민간 방북 잇따라 불허

통일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방북단의 방북을 불허한 데 이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 방북단 79명의 방북 신청도 불허했다.

통일부는 11일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

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반려한다”고 통보했다고 청년학생본부측이 12일 밝혔다.

본부측은 “정부가 남북 민간 사이의 교류마저 가로막는 처사”라며 “통일부는 민족의 화해협력에 실현하기

위한 정부기관으로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학생통일담당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 방북단은 14일 방북해 18일까지 평양과 백두산, 묘향산 등지의 문화유적을 답사할 예정이었다.

통일부는 지난 8일엔 전교조 방북단 69명의 방북을 반려했다.

연합뉴스

2012년까지 과학기술 7대 강국 만든다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리고 7대 R&D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7대 시스템 혁신으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과학기술기초계획 577 전략(Initiative)’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기초계획 ‘577 전략’과 2009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방향, 연구자 친화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등 3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선진일류국가’를 향

교과부 ‘577 전략’ 마련
R&D 예산 GDP 5%
7대 기술 집중육성
7대 시스템 선진화

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초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577 전략’이 핵심이다.

577 전략은 국가 중 연구개발투

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 (정부 1.25%, 민간 3.75%)로 늘리고 7대 기술분야(R&D)를 중점 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선진화·효율화해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R&R 예산을 참여정부(40조 원)보다 26조원 이상 늘려 66조5천여원을 투자하고 기초원천분야 지원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력기간산업기술과 신산업창출, 지식기반서비스 등 7대 기술분야에서 50개 중점기술과 40개 후보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중신장 보안 요원 3명 괴한들 칼에 찔려 숨져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카스(喀什) 시 인근 검문소에서 2일 보안요원 3명이 칼에 찔려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9시(현지 시각)께 카스시 수려현 아반아진 검문소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괴한들은 검문소를 통과하던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보안요원 4명에게 칼을 휘둘렀다. 현지 공안당국은 괴한들의 정확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검문소는 지난 4일 위구르족 테러범들의 차량폭탄테러 공격을 받아 공안 16명이 사망한 카스시에서 30km 떨어진 곳이다.

연합뉴스

美 “검증 합의까지 北 테러지원국 해제 없다”

미 행정부는 11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에 대한 검증방안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미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방침을 통보, 이르면 11일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국무부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강력한 핵검증 체제에 합의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위한 ‘의회 통보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북한을 테

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 핵프로그램 검증과 관련, 북미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 지에 대해선 “북한은 핵검증체제를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작년 2월 6차회담 2·13합의와 10월 10·4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미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경영민(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일류국가’를 향하는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초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577 전략’이 핵심이다.

577 전략은 국가 중 연구개발투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일류국가’를 향하는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초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577 전략’이 핵심이다.

577 전략은 국가 중 연구개발투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일류국가’를 향하는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초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577 전략’이 핵심이다.

577 전략은 국가 중 연구개발투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제1기)

1. 연수일정

구분	일정
개강일	7월 27일(토) 09:00~10:00
종강일	10월 11일(토) 09:00~10:00
수료식	10월 11일(토) 10:00~11:00
수료증	10월 11일(토) 11:00~12:00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일류국가’를 향하는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초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577 전략’이 핵심이다.

577 전략은 국가 중 연구개발투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제1기)

2. 연수장소

연수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1, 11층 (신원대학교)

3. 연수비용

연수비용: 1,200,000원 (과외비 포함)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7월 27일(토) 09:00~10:00에 신청

5. 문의처

문의처: 02-550-0000 (신원대학교)